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展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展

2007. 6. 21 - 7. 6

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展’에 붙여

성남문화재단

20평으로 반듯반듯하게 나누어진 집들이 파도치듯 언덕을 타고 좁은 골목길을 펼쳐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2006년 10월, 태평4동 골목길에선 동네 아이들이 일상용품을 재활용하여 만든 ‘예술작품’ 들을 펼쳐놓고 장터가 열리고 있었다. 좁은 골목에 뽁뽁이 들어선 상가를 중심으로는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작업한 ‘가게 아트리폼(Art Reform)’이 인기가. 지하 입구를 중학생 아이들과 함께 만화벽화를 그려넣은 ‘홈런만화’, 가게 내부의 벽 한곳에 매운 고추로 장식하고 동네소식을 담은 게시판에 내걸은 ‘꼬치열전’, 예쁜 타일로 수저통과 카운터 벽을 꾸민 ‘종로분식’ ... 15곳이 넘는 상가들에서 주민들은 예술가의 도움으로 생활 속에서의 예술을 펼치며 태평4동만의 독특한 ‘시장골목’을 만들어 나갔다.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5개의 동네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골목길, 공단, 아파트, 시장, 상가 등 성남시의 45개동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동네의 색깔을 창조해 나가는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문화도시 성남 창조」를 위한 문화정책 사업 중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와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이 그것으로 하나의 동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동네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는 ‘그 동네’로부터 프로그램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4개월 동안이 ‘동네로부터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성남’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가를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은 동네프로젝트 기획단이 태평4동 골목길 구석구석을 거닐며 주민들과 ‘태평4동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태평4동의 ‘파도치는 골목길’을 수십 차례 오르내리며 집 한 채, 골목 하나를 다시보고 또 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던 것은 처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두 번, 세 번 횡수가 점점 더해 갈 때마다 ‘태평4동 골목의 보석들’이 하나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태평4동 프로젝트의 모든 프로그램은 바로 그 숨어있는 보석들을 예술가들과 주민이 함께 끄집어내어 열심히 닦고 손질한 것들이다.

‘골목길 쪽마루 만들기’는 가장 많은 주민들이 요청한 프로그램이다. 특별한 휴게공간이 없는 태평4동에선 주민들이 골목길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쪽마루는 이야기와 쉼터를 나누고자 하는 태평4동 주민들의 문화공간에 대한 강렬한 바람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화단가꾸기’와 ‘벽화미술관’, 번듯한 놀이터 하나 없지만 아이들의 가장 친근한 놀이터인 골목길에서 펼쳐진 ‘맨홀뚜껑 디자인’과 ‘모빌작품 달기’, 동네의 풍경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골목길

영화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움직이는 사진관' 등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의 평상시 바람을 예술가와 함께 작업한 것이다.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展' 은 2006년도 태평동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기획되었다. 기획의 초점은, 예술이 동네라는 삶의 공간에서 펼쳐져야 하고 바로 그 '예술이 펼쳐진 삶의 현장' 을 아트센터에 전시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예술은 시민 누구에게나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나의 삶이 펼쳐지는 동네에서 예술이 펼쳐지고, 내가 그 예술의 창조자로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동네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펼친 예술이 다시 아트센터에 전시된다는 것은, '아트센터에 전시되는 예술' 의 벽을 허물고 시민과 시민의 삶이 아트센터의 당당한 주인임을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태평동에선 지금,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 지속사업으로 '태평4동 어린이 기자단, 꿈꾸는 아이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10월 9일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린이 기자단' 이라는 '기자증' 을 목에 걸고 사진기와 수첩, 캠코더를 손에 든 아이들로 왁자지껄 동네 이야기 마당이 펼쳐졌다. '꿈꾸는 아이들' 이 준비한 태평4동 어린이 기자단 발족 및 한울뉴스 창립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고사리 손으로 제작한 동네신문에는 작년부터 동네주민들과 함께 작업한 '동네 미술관' 을 탐방하면서 '그림있는 동네풍경' 과 금빛초등학교에 그려진 벽화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가을운동을 6mm 영사기에 직접 담은 송채연(금빛초 5학년) 아나운서의 보도로 '태평4동 어린이 뉴스' 를 발표할 땐 어린이 기자단의 환호성으로 동사무소가 들썩들썩할 정도였다.

성남의 동네 프로젝트는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다. 골목길 동네 태평4동의 작업은 은행2동에 자리 잡은 아파트 동네로, 공단이 있는 상대원1동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다. 주민의 삶이 배인 현장으로부터 문화와 예술이 싹틔워지고 주민 스스로 그 주인공이 되어 나가는 과정은, 문화의 도시 성남을 창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밑작업이 될 것이다. ■

태평동에서 노닐은 예술

김용익 _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성남아트센터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무동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웬 가건물 같기도 하고 모델하우스 같기도 한 설치물이 서있다. 좀 특이한 점은 베니어 판의 색깔이 낡탕으로 드러난 채 낙서가 “지저분”하게 써져있고 지붕이 없다는 점이다. 화강암 석판으로 매끈하게 마감 처리된 주변의 건물과는 판이한 분위기의 이 설치물은 “작품”이다.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열린 “성남의 얼굴 2” 라는 전시와 함께 열린,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라는 전시의 모습인 것이다. 글의 전개를 위해 이 전시물이 여기 이렇게 서있게 된 내력을 좀 밝혀둘 필요가 있다.

작년 가을 성남 문화재단에서는 성남시 태평4동에서 공공미술이라고 불리워 마땅한 사업인 “성남인의 창작 진흥 사업”과 “우리 동네 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벌인바 있다. 이 사업이 끝난 후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보완하기위해 현장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성남아트센터라고 하는 문화공간에 재현하기로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작품인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남은 한국의 개발주의, 성장주의의 상처와 모순을 고스라니 간직하고 있는 곳이고, 향후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나갈까라고 하는 미래의 과제를 안고 있는 곳이다. 태평동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가깝고 향 바른 언덕이라는 입지조건이 좋아서 이미 몇몇 아파트들이 건설되었고, 동네를 다니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태평동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빈 집 들이 많았고 그 소유주들은 다 서울사람이라고 했다. 개발업자들과 땅 소유주들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어렵지 않게 나도 그려볼 수 있다.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땅을 매입하고 집이며 골목이며 화단이며를 모조리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밀어내고 아파트를 죽죽 세우는 것. 그 과정에서 거기 살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은 무참히 찢기어 남루하게 드러나며 이윽고 묻혀버린다. 늘씬한 아파트들이 그 위에 서서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행복 도시를 약속하며 개발의 성과를 과시한다. 그 행복 도시에는 누가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일까? 그 행복 도시에서의 삶은 과연 행복 할까? 이런 질문들은 새롭게 디자인된 미끈한 도시경관의 스펙터클에 의해 봉쇄되고 만다. 그러나 언제나까지 이런 개발만이 능사인 것으로 지속되어야할까? 다른 방식의 개발은 없는 것일까? 이 설치물이 대변하는 커뮤니티 아트로서의 공공미술은 우리의 삶과 삶의 공간이 소중히 가꾸어지고 유지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할 당위성을 작지만 분명한 소리로 얘기한다. 주름진 삶의 공간을 무자비하게 깎고, 메꾸며 진행되는 무정한 토건적 개발주의, 성과주의, 더 나아가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성공주의, 능력주의 더 더 나아가 이러한 성공주의 능력주의를 뒷받침하는 개인주의, 천민자본주의의 무한 질주에 뺨을 놓는 것이 이 설치물 -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뺨-저항이 얼마나 가냘프고 무기력한가라고 우리는 자괴감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진보하는 것은 제도와 법이 바뀌어야만, 대통령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규율 권력, 화폐권력, 공간 권력, 시간 권력에 의해 신체에 각인된 의식(아비투스)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 자명해진 오늘, 그 신체에 새겨진 의식을 긁어내어 바꾸는 길은 오직 가냘픈, 가냘퍼서 애뜻하고, 애뜻해서 귀 기울이게 만드는 예술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여졌다고 본다.

그리고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라는 타이틀이 얼핏 음풍농월적 뉘앙스를 풍기나 결코 시대착오적인 예술주의가 아님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다. ■

성남 공공미술 참여를 통한 경험적 글쓰기

김태현 _ 작가

공공미술이 본격적으로 담론화된 것은 10년도 안 되었다. 그동안 몇몇 개인과 소수 그룹에 의해 꾸준히 관심과 실천을 보이던 그런 공공미술이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급물살을 탄 공공미술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업을 만들어냈지만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엔 웬지 이른 감이 있다. 공공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바야흐로 ‘공공미술의 시대’로 착각할 만큼 수많은 사업을 쏟아낸 이면엔 또 다른 문제들이 함께 불거져 나온 탓이다.

과거 개발논리로 일관한 한국 근대사가 보여준 면면과, 최근에 서울시가 불도저식으로 추진한 청계천 프로젝트가 잘 보여주듯,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결과만을 들춰내 반짝이는 성과만 뽐내며 여전히 과정이 묵살되는 문화구조에 익숙해져 있다.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활력을 찾은 공공미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관에서 순식간에 큰돈을 만들어내니, 우후죽순 사업이 생기고, 사람이 모이니 애초에 공공미술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자본주의 구조가 만들어낸 공간에서 암증모색하며 자생한 공공미술은 아이러니하게 그 자본주의 안에 편승하여 기존 미술관의 체계모니에 재 편입된 느낌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한다. 이것은 내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요, 무거운 맥락을 벗어던지는 것이다. 요사이 주변사람에게 더러 그런 놀 취급을 받으며 논다. 그러다가 작년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한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인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에 참여했다. 그리고 태평4동 작업들을 성남아트센터에서 전시물로 보여주는 일까지 엮었다. 전시 중 공공미술에 대한 발제문 아닌 발제문도 썼다. 어쨌거나 근래의 내 삶에 비추어볼 때 무책임하기까지 한 지금의 행동은 성남에 대한 나의 애정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음이다.

우선 성남 태평4동에서 있었던 2006년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기획안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환경개선사업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태평4동에서의 사업은 공공 예술적 수단을 통해 주민참여를 자극하고 자치적 문화역량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일환으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생활 속에 창의적 문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기획단이 꾸러지고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세부안건이 도출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오랜 기획회의에서의 내 역할을 굳이 밝히자면 태평동에서 살며 작업했던 경험을 살려 태평4동 정서에

대해 역설하는 것이었다. 과거 주민대표로 참여한 셈이다. 그렇게 진행된 여러 사업 중 일부를 모으고 보충하여 2007년 성남아트센터에 다시 끌어들였다. 태평4동 공공미술사업이 분당 성남아트센터 공간에서 왜 다시 재현되어야 하는가에 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사업 예산을 성남문화재단에서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였다. 밖에서 진행한 사업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바깥 사업을 진행함에 두루 살피자는 취지다. 결국 앞서 그곳에서 계획한 내부 전시를 빛의 계단인 외부공간으로 끌어내, 그 곳에 실제 태평4동 1712번지 주거 공간을 실제크기의 80%로 재현해 1층 2층 옥상으로 분리된 3개의 공간을 만들었다. 결국 빠듯한 예산과 작업일정,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전시는 '성남 얼굴전'과 맞물려 동시에 오픈되었고, 전시는 분당에서 먼 성남만큼 계단만 점거하고 우두커니 서있었다.

8년 전, 1999년 성남시청로비(전략적으로 선택한 장소)에서 성남프로젝트 전시가 있었을 당시 다소 고무적이었던, 시장이 직접 나서서 직원들에게 '가서 꼭 봐라' 던 기억이 떠올랐다. 문화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세련되고 풍요로운 공간인 이곳, 문화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자연스레 다양성이 인정될 것 같은 이 곳에서 우리들 전시는 외면당한 채 있었다. 역시나 세련된 분당에서 기존시가지 성남과의 애정행각을 드러내기엔 아직도 시기상조였지 싶다.

이제 성남아트센터를 아울러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공공미술에 아주 살짝 접근해 판지를 걸어 보기로 하자. 정말이지 아주 살짝.

공공미술은 기존 전시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다. 공간이 다르다. 즉, 주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으로 다가선다. 그런 많은 변별점을 무시하고 수많은 공공미술사업이 기존의 전시 기획처럼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미술사업이 진행되면서 불거진 문제들을 기억나는 대로 떠올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관료미학 간의 의견 충돌이 여전하고, 거리 좁히기, 상호협력이 여전히 미흡하다. 낯설기만 한 공공미술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며 긴밀히 일을 진행하기도 벅찬데, 여전히 전체 사업의 많은 하중이 행정업무와 부딪치며 발생한다. 사업을 시켜놓고 발목을 잡는 셈이다.
- 공공미술은 여전히 예술감독 및 기획자 중심에서 진행된다. 물론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입장에선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빠듯한 일정 안에 소화해 내기란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참여 작가들을 굴비 두름 엮듯 엮어 진행하는 공공미술은 언젠가부터 관행이 된 듯싶다. 특히나 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지역과 긴밀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중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맥으로 형성된 작가군과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이것은 공공장소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다할 수 있다. 결국 비슷한 사업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중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 가끔 송고한 작가정신을 몽매한 주민들이 몰라준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반면 관료미학(품나는 사업)을 간파한 작가와 그룹들이 있다. 공공미술을 모르는 준비 안 된 함량미달의 개인과 소그룹이 기존 전시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 통로는 여전히 좁다.
- 전시가 경력이 되는 미술관, 스튜디오 입주까지 경력이 되는 미술관은 그것도 모자라 공공미술 참여까지 경력으로 쌓으려고 나온다. 그들에겐 모든 게 언제나 완전히 통한다. 공공미술 역시 미술관 해계모니의 구조로 환원되고 있다.
- 지속적인 관심 부족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개의 사업이 주로 문화시설이 낙후한 곳, 사회적 약자 쪽으로 우선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모두가 관료미학의 특징 중 하나다.
- 단지 유명작가란 이유로 프로젝트에 끌어들여 공공미술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현상들도 보인다.

- 공공성 또한 기존 미학적 잣대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성이란 의미도 언제부터가 빠르게 분석되고 쉽게 개념화하려는 일련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을 일종의 망으로 본다. 망은 다양성을 뭉그러뜨려 빠르게 하나의 개념으로 환원시켜서 역으로 모든 다양성을 그 안으로 가둬 놓는다. 개념 또한 열고 나가는 문과 같은 경계, 지점으로 일종의 과정이다. 걷다가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지나온 길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살피는 곳이다. 공공미술은 망(그 곳에 주저앉음)에 포섭되지 말고, 망과 망 사이를 열고 그 사람 사는 곳 어디든지 그 사이를 지속적으로 미끄러지고 부딪쳐야 한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성남 작업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반면 빗겨간 내용도 있다. 하나하나 따져 생산적인 비판을 해볼 일이지만 오늘 여기서는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려 한다.

공공공간 접근 누가?

공공미술 참여는 쉽기도 어렵다. 쉽다함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니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이고, 어렵다함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언정 번뜩이는 기획력과 작업만을 가지고 덤비기엔 하나의 특정 공간 그곳 삶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사업이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하는 사람, 특히 기획자는 귀를 열고 발품 팔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 애정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참여시키는 보이지 않는 노고를 선행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성남의 문제는 지역작가 참여 내지는 발굴, 양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여전히 기울이지 않는다. 아직도 지역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큰 관심이 없는 듯싶다.

돌이켜 보면, 성남에서의 공공미술은 내가 95년 성남에 들어와 이곳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업하면서 한 98년 ‘성남 공간의 파괴와 생성-성남과 분당사이’와 ‘성남 환경조형물 조사’ 사업, 그리고 한시적으로 꾸려진 ‘성남 프로젝트’의 몇 년에 걸친 활동을 제외하면 성남에서 공공미술로 꾸려진 여타 작업은 관주도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진행된 벽화가 고작이다. 문제는 이젠 나를 포함한 참여 작가들이 모두 외부 작가란 사실이다. 다행인 것은 미약하게나마 근래에 와서 성남 민예충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생겨나고, 외부 공공사업 중 벽화로 참여하는 조인희 작가가 성남 공공미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어렵게 이룬 ‘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 전시에 결합한 점이다.

모조록 이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에서 일할 사람을 발굴·양성하며 공을 드리길 거듭 바란다. 외부 작가의 결합만으로 자치적 문화역량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느린 프로젝트를 기다리며

현실의 삶과 예술, 공공미술은 분리된다. 미술에 있어서 창작, 비평, 소통 또한 분리된다. 이것은 20년 가까이 그림 작업을 통해 내가 경험한 것이다. 비단 미술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가족이 해체되고, 학교가 해체되고, 정치가 국민들을 외면하는 현상들과 맞물려 있다.

나는 꿈꾼다. 아주 느리면서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즐거운 일과 놀이를 여기에 주체자의 신념과 변화의지, 인내가 없이는 넘기 어렵다. 또한 작가의 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축하는 단체의 소신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너무 뜬금없는 듯 한 이러한 글쓰기가 때때로 나에게 아주 잘 짜여진 기획서(때론 현실에서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많다)보다 날 불러 세우는 힘이 된다.

어쨌거나 2006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짧지만 즐거웠던 내 경험을 말해 보면, 먼저 기획에서 작가진행을 재단과 연결시켜주는 지점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 중에 정석준 과장의 역할이다. 공공미술 사업상 많은 작가가 참여하면서 행정업무와 부딪치다보면 의외의 크고 작은 일로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서 조율자로 나선 정 과장의 배려로(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곤) 전체적인 일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다. 나로서도 드물게, 아니 처음 경험하는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작년 사업을 진행하고 너무 힘들어선지 다시는 성남문화재단에서 만날 수 없게 돼 못내 아쉽다.

다음으로 기분 좋았던 일은 참여한 작가들이 어깨에 힘을 빼 주었다는 사실이다. 대개 미술계 작가들로 진행되는 공공미술 사업은 사업진행 구성자의 특성상 작가주의와 부딪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전체 프로젝트로 바라보면서 서로 양보하며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가 스스로 평소의 개인작업처럼 진행하다보니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기고 그로 인한 문제가 적잖게 발생한다.

본 프로젝트에선 이 점에 관해선 다행히 작은 문제도 없이 잘 치러졌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물론 전체 프로그램이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내 경우 평상 제작에 참여한 정병인(태평4동 주민)씨의 아낌없는 수고가 없었다면 주문받은 그 많은 평상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나는 망치소리, 주민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현장에서 치수를 재면서 있었던 부딪힘. 때론 주민들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다정하게도 들리는 그런 즐거움이 작업 과정의 하나의 놀이가 되었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 가운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란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때 주최 측에서는 특정지역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 즉, 형평성을 따지지만, 어쨌거나 주민 입장에서선 실적내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보이지 않는 성과에 대한 반감이다. 주민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형의 것에 대한 이해가 낮다보니 뭔가 보이는 것을 해주기를 원한다. 차근차근 만나는 지점을 넓히며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 풀기 어려운 숙제는 아닌 듯싶다.

그래도 내겐 모든 게 빠르다. 하나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민들 속에서 함께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성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여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소신을 갖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년에 기획을 주도하셨던 김용익 교수가 서울에 사는 한 작가에게 이런 말을 진지하게 건넨 적 있다. “네가 전에 성남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고 지금 하는 작업과도 잘 맞으니 아예 성남으로 거주지를 옮겨 지속적으로 작업하면 어떻겠니?”

나는 안다, 그만큼 성남이 갖는 공간의 중요성을 …….,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걸 …….

그러나 누가 생활을 포기하고 지원도 없는 이곳에서 작업을 할 것인가.

아마도 그것은 지역에 기반을 둔 작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것 같다. 느리게라도 모조록 지역에서 관심 갖기를 ……., ■

1층, 태평동 이야기

임흥순, 민지애



01 태평동

1층은 지난해 태평동에서 진행했던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바탕이 된다.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태평동의 실제 주택을 80% 축소한 가건물을 제작하여 그 안에 작년의 결과물과 그것을 재구성한 전시이다.

‘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에 설치된 3개의 가건물 중 하나인 1층 전시 공간은 거실, 작은방, 화장실, 큰방 네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관객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실’의 경우 작년에 진행되었던 〈예술, 태평동을 노닐다〉의 과정을 안내문 또는 ‘거리 아카이브’ 형식으로 만들었다. 나머지 세 공간 -큰방, 작은방, 화장실-은 시각과 소리, 체험을 바탕으로 재현하였다.

구조물 내부는 집 안 풍경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골목길 풍경이다. 태평동의 과거의 모습이자 현재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현실의 리얼리티를 과거와 미래의 교량으로서 있고 개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공식적 통계 자료나 도표를 참조하기도 했지만 이번 전시는 몸으로 체험한 경험과 관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현재의 태평동을 재구성했다.



거실 전경, 태평동 프로젝트 맵

02 거실

대문을 열고 집안을 들어갈 때 대개 맨 처음 마주 하는 곳이 거실이다. 우리는 거실의 유무형의 분위기를 통해 집안의 역사나 특징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점을 착안해 1층을 들어오면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거실 공간 한 곳에 작년 프로그램 - 벽화, 쪽마루, 모빌, 움직이는 사진관 등-이 진행되었던 곳을 색지와 색실을 사용하여 설치형태에 가까운 상황판을 제작하였다. 상황판은 실제 지도가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젝트 맵(Map)과 이미지 북(book)으로 어느 장소인지 측정 가능하게 했다.

프로젝트 맵 옆 벽면에는 전시 안내와 작년에 실시했던 프로그램 파일을 나열해 놓았다. 과정에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문서들- 회의내용, 인터뷰 프리뷰, 일정, 공문, 스케치 등-과 모니터를 통해 프로젝트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영정 프로그램, 골목길 영화제의 과정,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영상물 그리고 지역 영상 모임단체<늘봄>이 태평동의 골목길을 영상화 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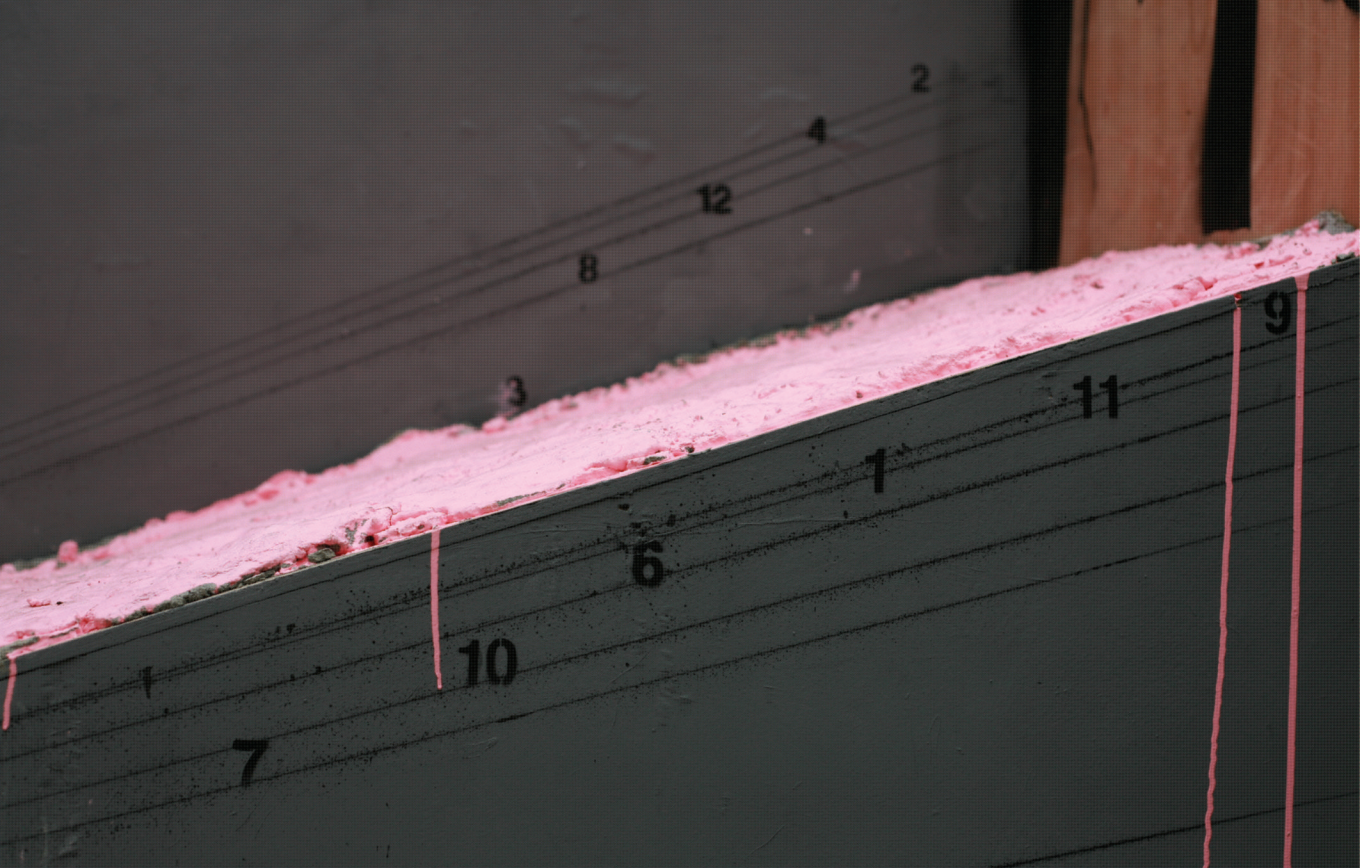


큰방 전경

03 큰방

성남의 길들은 대부분 비탈길로 심하게 구부러진 M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선입주 후건설이라는 전무후무한 입주방식으로 산을 대충 깎아서 민둥산에 집을 만들었던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성남은 1960년대 말 서울시가 청계천변 판자 집 주민들을 강제 이동시키는 정책으로 외부인들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70년대 초 본격적인 대규모 이주가 시작될 때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20평씩 나누어 주고 말뚝을 박아 마구잡이로 집을 만들게 했다. 정비되지 않은 산위에 길을 내고 무계획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난 집들이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된 것이다. 위성으로 본다면 정방형의 도로 모양을 갖춘듯하나 그곳을 직접 걸어 다닌다면 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사가 심한 태평동의 독특한 지형을 경험하게 된다.

큰방에는 이런 성남 구 시가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비탈길을 방 한 구석에 재현했다.(1998년 성남프로젝트의 시멘트로 만든 비탈길 기율기 참조) 반대 벽면에는 태평 2,3,4동의 실제 측정 각도와 측정 장소, 번지수를 함께 적어 표시하였다. 측정은 비탈길에 물을 채운 물통을 놓아 물의 기울기를 측정하였고, 비탈길의 평균 기울기를 시각과 몸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공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재현의 도구로 일상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재료와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태평동 비탈길 기울기 모형

태평동 비탈길





관람객이 올려놓은 종이학

04 작은방

다른 저 소득층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 또한 노인문제가 적지 않다. 젊은 층들이 주로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어 낮에 태평동을 지나다 보면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다. 인터뷰 중 많은 노인들이 영정(장수)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 초기 초상화와 영정사진 제작을 진행해 보자는 의견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실제 태평동은 다른 동네 비해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다.

진행 방법은 지난 시절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돌아 다녔던 이동 사진관처럼 영정사진 프로그램 팀도 태평동을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진행하였다. 미술과 사진이 가장 쉽게 공공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러한 것이 공공미술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다.

“예쁠 때 찍어두고 싶어, 나 죽고 조그마한 사진 뽕튀기 하면 그거 보기 안 좋아. 근데 애들은 불효라고 생각하는지 영정사진 찍어달라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다니까”

다 찍은 후에 액자로 제작하여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사진들은 대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정사진처럼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사진들이 대부분 이었다. 사실 인화하기 전 사진을 고르면서(여러 장을 찍었기 때문에..) 눈감고, 웃고, 뻐뻐어진, 소위 망가진 사진들이 더 편안하고 좋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선택하려하지 않았다. 소위말해 반듯하게 잘 찍혀진, 증명사진 같은 사진을 원했다. 그러나 망가진 사진, 망친 삶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가? 남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을 때 그 기준은 달라지는 것 아닐까? 그러나 세상이 주입한 표준적인 삶의 모델에 포박되어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 책임지고, 자신의 늙은 외모에 대해 당당함을 기대하는 것까지는 무리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정사진 제작이후 선택에서 제외되어 쓸모없어진 사진들을 모아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와 노인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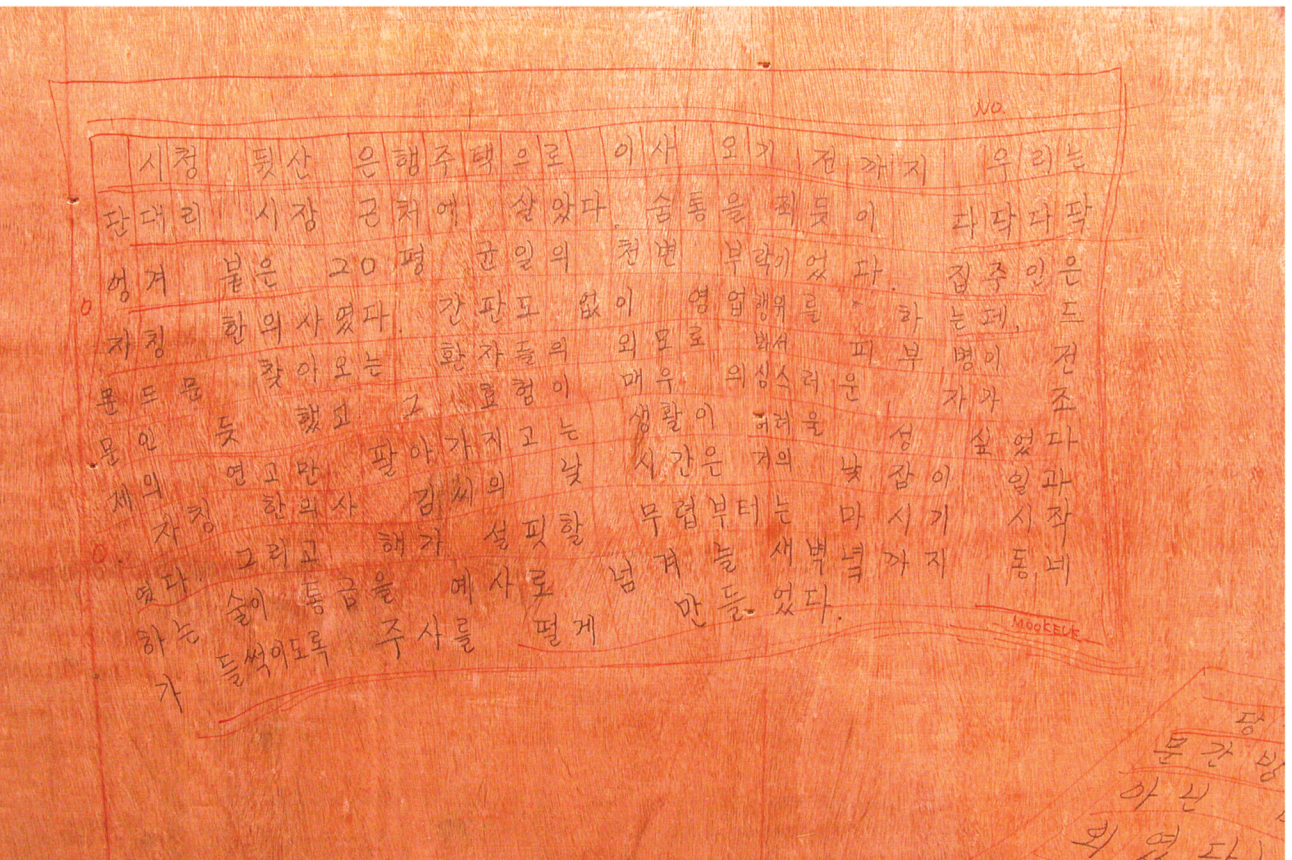
작은방 장수사진 비디오 프로젝션



거실에 전시된 인터뷰와 자료 도큐먼트

05 화장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배출의 통로라는 것에 착안하여 공간을 구성했다. 어르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테이프로 만들어 카세트 라디오로 틀고, 벽에는 윤홍길의 소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일부를 발췌해 낙서해 놓았다. 자연스럽게 지난 기억을 되짚고 뱉어내며 소설 속에 드러난 성남의 옛 모습처럼 무겁지 않게 드러내고 싶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개인들의 사건일질 모르지만, 그 역사의 현장 한 가운데에 있었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단지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길 바랐다.



화장실 벽면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발췌내용



어르신 인터뷰 목소리 (카세트 라디오)

06 성남에서의 공공미술

성남은 구시가지 중원, 수정구와 신시가지 분당구로 이루어진 도시로 한국 근대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어느 도시처럼 성남 또한 도시화, 재개발로 구도심의 환경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변화라면 좀 더 질적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현재의 개발우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실제 지역의 삶과 문화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서두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1층 전시는 지난해 진행되었던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를 바탕으로 두고 태평동의 공간 특징을 재구성 하고자 했다. 구 시가지를 작업(연구)대상으로 예술, 문화의 새로운 개입을 통해 지역의 의미를 재고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이유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삶과 삶의 공간에 대한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크지 않은 공간 연출이었지만 지역주민들(성남, 분당)의 구 시가지에 대한 관심 유도과 나아가 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 활동이 ‘지역의 도시환경에 어떻게 개입해 가는 가? 또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 가?’ 하는 문제 제시이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들(공공성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미술이 올바르게 작동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곱씹어 보는 전시이기도 했다.

2층 “우리 동네, 우리 집~”

이은정, 정은영



01 프로그램 개요

교육대상 _ 금빛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와 졸업생

이윤희, 임채영, 윤단비, 김수현, 조지영, 이은경

교육기간 _ 2007년 5월30일~ 6월21일

교육장소 _ 금빛초등학교 2학년 4반 교실

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

02 프로그램 연구

“우리 동네, 우리 집~”은 지난해 태평동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그램이며, 우리 마을의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관찰해 봄으로, 나와 우리라는 관계에 대한 발견을 한 공간 안에 표현해 보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어린이들은 일상적이고 평범하던 우리 집안 풍경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갖고, 사진과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하고 재구성 하여 공공의 공간으로 옮겨 놓음으로서 또 다른 개념의 “우리 집”을 만들어 본다.

지난해의 “우리 동네 +놀이=거리전시장” 작업은,
올해는 “전시장+놀이=우리 집”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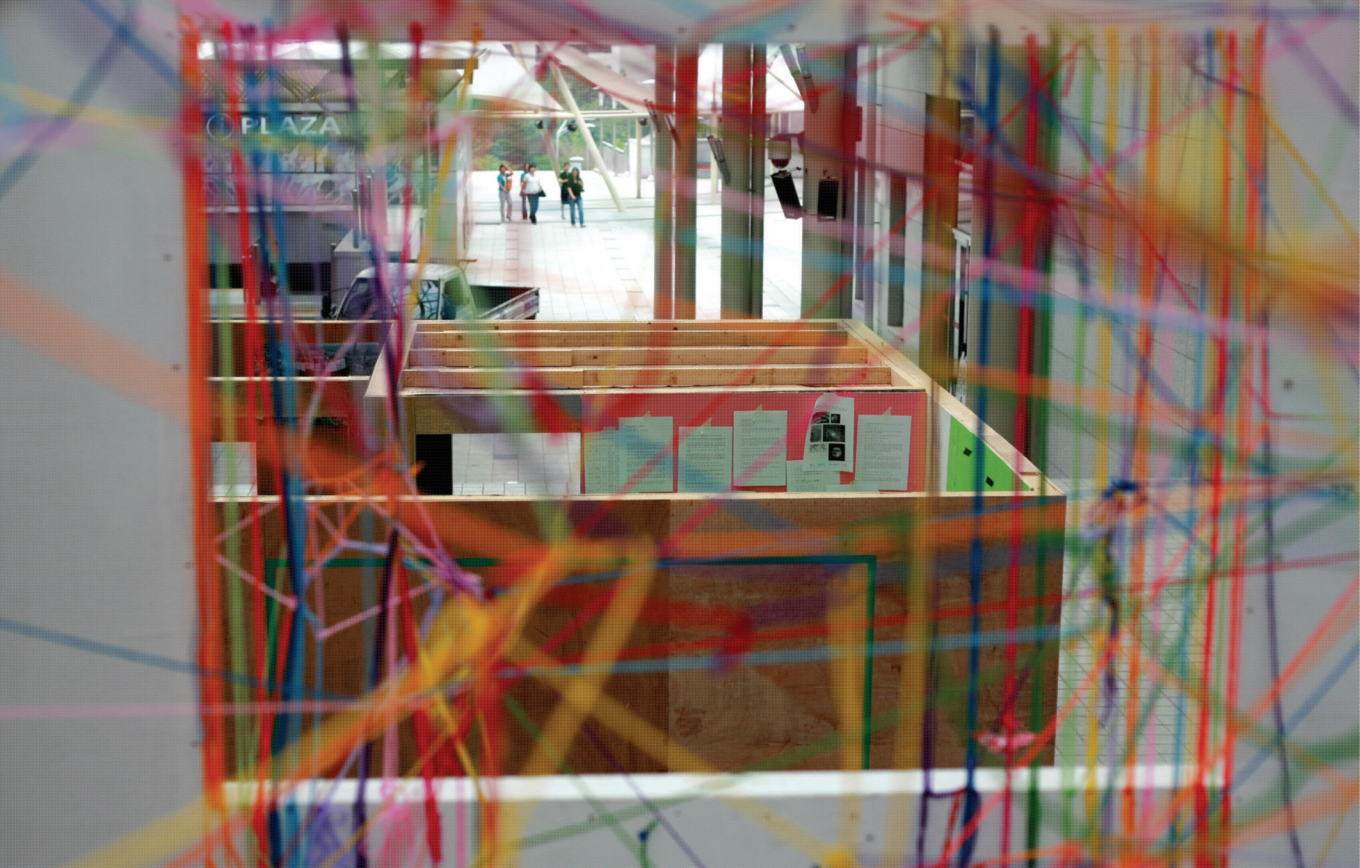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는 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 자그마한 가건물 2층 안에서 시작된다.



2층 외곽 벽, 벽화 선생님들의 지도 하에 완성된 벽화들(어린이 작가들 작품)

작업하는 어린이 작가들





전기 관람객들이 다녀간 흔적이 보이는 "참여의 방"

화장실 (색 테이프로 화장실 풍경을 라인 드로잉)



03 작업 과정

아이들과의 첫 만남

2007년 5월 31일 12:30~13:30

장소 _ 금빛 초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

금빛초 어린이들과의 또 다른 만남이 있는 날이다.
교감 선생님께서 지난해에 작업을 함께 했던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여러 명을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하신다. 몇 달
만에 만나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니 조금 흥분되기도
하고..... 변했을 그 모습들을 상상 해 본다.

그. 린. 데.

지난해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졸업을 하고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있단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과의 작업은,,, 조금은 불가능 하지
않을까....

드디어 친구들이 도착했다.

우리들의 또 다른 첫 만남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무실
앞 복도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참여한 친구들은 모두 8명.

그중엔 반가운 얼굴들도 두엇 눈에 띈다.

낙훈이와 영채...^^

모두들 건강한 모습들 이다.

이리저리 둘러보다 적당한 장소를 발견한 우린 곧 현관
앞에 웅기중기 모여 앉아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다.

“선생님~임, 이번엔 어떤 놀이를 하나요?” -낙훈-

“왜 작년엔 저희들한테 안 알려 주셨어요?” “저희들도
참여 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에요~” _채영, 단비_

^^;;

이번에도 정~말 귀엽고 명랑한 친구들이 많이

모였네요~

종알대는 친구들을 진정시키고 곧 이어질 5교시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사진촬영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유무조사가 시급했다.

8명중 두 명의 친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었고,

6명의 아이들은 서로 돌아가며 촬영하기로 약속, 별
문제는 없을 듯 하다.

영채와 한솔인 금빛초의 담당교사님께서 특별히

카메라를 빌려 주시겠다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가가 되어서
참여하는 거예요~”

“네~에? 전시장에도 직접 가세요? 그림도 그리구요?”

“와~ 진짜 재밌겠다!” “야~벽화도 그린대~”

흥분하는 친구들에게 천천히 집안풍경 촬영에 관한
방법을 알려 주고 아이들과의 스케줄을 조정해본다.

6월21일 전시오픈의 조금은 빠듯한 일정이 될 것 같지만
오늘 친구들의 눈빛에서 그 가능성을 읽은 듯하다.

두 번째 만남

2007년 6월 5일 15:30~17:30

장소 _ 금빛 초등학교 2학년 4반 교실

오늘은 친구들의 집안풍경 사진의 리뷰가 있는 날이다.

과연,,,, 어떤 풍경들을 담아 왔을까?

모두들 정확하게 교실에 도착했다.

낙훈과 주영일 제외하고.....

그 둘은 체육활동 때문에 빠듯한 일정의 이번 프로젝트엔
참여 할 수 없게 되었다.

교실에 있는 대형 모니터와 컴퓨터 덕분에 친구들은
제각기 자리 잡고 다른 친구들의 사진을 감상 할 수
있었다.

“제가 키우는 햄스터 예요~” “와~귀엽다!”

“제 방인데요....좀 지저분해서....;;” “그래~ 그럼
트리밍을 하면 되겠구나~”

“아! 그럼 되겠네요!”^^

“저희 집 냉장고고 구요, 부엌살림들이예요”

“우리 집 강아지 예요”

“이건 우리 집에서 본 하늘이에요~”

우와~정말 멋진!!!

단비가 보여준 하늘 사진들은 2층의 뚫린 하늘 위를
장식할 좋은 소재가 되었다.

오늘 만남의 마지막은 벽화로 이어질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로 마무리하기로 한다.

벽화 그리기의 밑그림이 될 지도 이므로 모두들 하룻길을
머릿속에 더듬으며 펜을 움직인다. 맛난 떡볶이를
먹으면서.....

세 번째 만남

2007년 6월9일 12:00~14:00

장소_ 2학년 4반 교실, 태평동 거리

오늘은 사진 2차 셀렉트의 날.
그리고, 친구들의 포트레이트 촬영이 있는 날이다.

간단하게 사진 리뷰와 셀렉트가 끝난 후 아이들의
포트레이트 촬영이 시작된다.
처음엔 어색한 웃음 속에 수줍어하던 아이들이 곧 제대로
포즈를 취하기 시작한다.
초등학생답지 않은 성숙한 표정 연기에서부터 한없이
귀여운 깜찍이 표정까지...^^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자, 이번엔 거리로 한번 나가볼까?

골목마다 지난해 작업했던 아이들과의 추억이 곳곳에
숨어 있는 듯 하다.
아!!! 한 가지 좋은 소식!!
올 해 중학생이 된 지영이와 은경이가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엄청 날씬해진 지영이와 여전히 해맑은 웃음이 이쁜
은경인 이제 의젓한 중학생
이자 다른 친구들의 선배이다.
그런데, 처음 만난 선배들과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결국, 새침테기 후배들의 마음을 먼저 풀어 준 건
선배들의 엄청난(?) 사교성덕분.
“야~ 넌 정말 키가 크다~~”
“뭐? 남자친구도 있따구? 와~”

우리의 꼬마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까다로운(?)
선생님의 요구에도 힘들어하지 않고 골목길에서, 학교 내
벽화 앞에서 열심히 포즈를 취해주며 배경지도 잡아준다.
게다가 지영이와 은경인 교복까지 준비해 와서 지난해에
이은 프로젝트에 대한 열의를 보여준다. 교복으로 이쁘게
갈아입고 와서 골목길사진에 포즈를 취해주는 두 친구의
마음이 넘 이쁘고 고맙다^^

지영, 은경, 윤희, 채영, 단비, 수현.
이번 우리 프로젝트에 끝까지 함께 참여 하게 된
꼬마작가들이다.

네 번째 만남

2007년 6월 17일 10:30~18:00

드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 위 우리
친구들의 집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다. 친구들을 위한
가건물이 완성된 것.
아침에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한 아이들은 소풍가는 듯
들뜬 분위기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뜨거운 햇빛아래 작업 하게 될 친구들.....,
특히 전시 공간이 될 빛의 계단은 더더욱 그늘 한 점 없는
곳이기에 친구들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미리 준비해 놓은 음료수와 간식들마저 이런
더위아래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만 같고... 오늘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엇?” “어머~” “히~!!” “와~!” “우와~ ” “멋지다!!”

아이들은 가건물을 본 소감을 짝박하게나마 감탄사로
표현해 주었고, 그것은 곧 그들의 작업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이었다.
일단, 안심~
썰렁한 가건물을 흰색페인트로 칠하느라 페인트에
맘투성이 이었던 며칠 전 우연히 공연 취재 나온 Y사
후배의 어이없다던 눈빛이 언 듯 생각난다.^^;

미리 도착해 기다리고 계셨던 벽화 도와주시는 두 분께선
아이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기준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도와 주셨다.

오늘도 역시... 햇빛은 짹짹~
처음엔 신이 나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사진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지쳐가기 시작한다.
도저히 어른들도 견딜 수 없던 숨 막히는 더위
다행히 일요일인데도 1층의 카페테리아가 영업을 하고
있었기에, 그곳에서나마 가끔씩 숨을 돌릴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거의 완성 되어가는 거실의 모습.
아이들의 집안풍경 사진과 그 사진의 연장선상을
드로잉으로 표현 해 본다.
작은 화장실은 윤희가 색 테이프로 컨투어 드로잉을
시도한다.
이곳이 우리집중 가장 더운 곳.....
구슬땀을 흘려가며 화장실에서 씨름 하고 있는 윤희가
정말 고맙다.

지친 친구들을 위해 좀 이른 점심을 먹기로 한다.

빛의 계단위에 앉아 점심을 먹는 금빛 아이들....
언제 그랬냐는 듯 기력을 급 회복한^^ 우리 친구들은
다시 사진과 그림에 매달리기 시작한다. 외곽의 예쁜
벽화도 마무리 하고.....

다섯 번째 만남

2007년 6월 21일 15:00~17:30

오늘은 전시 오픈 일이자 금빛 어린이들의 방문일.
3층의 이야기 할아버지와 인터뷰도 하고 보도사진용
사진 모델도 되어 주어야 하는 날이다.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안방과 관객 참여의 방, 거실의
하늘 풍경에 너도나도 감탄한다.

“와~ 이걸 언제 다셨어요?”

“예뻐요~” “야~ 단비 사진 이쁘게 나왔어요!”

“전 뒷모습으로 찍길 잘했어요.^^”

“채영인 님 귀엽게 나왔어요.”

참여의 방에 들어가 색칠도 여기저기 묶어보던 아이들은
홍보팀에서 나오신 촬영하시는 낯선 분에 살짝 놀란 듯,
순간 새침한 기운이 감돈다.
하지만 개구쟁이 단비의 너스레 표정연기에 다함께
까르르.....

즐거운 촬영 시간이 되었다.

이야기 할아버지와와의 미팅도 성공적.

옛 성남 이야기에 도취하신 할아버지, 그 분의 진지함에
매료된 우리 아이들.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학교 앞에 내려주고 돌아서는
마음에도 서운함이 묻어난다.

단비, 채영, 윤희, 수현, 지영, 은경.....

꼬마 작가님들~ 또 만나요!



단비+은경+지영+수현+채영+윤희집 = 우리집
어린이 작가들의 전시 주제

04 작업을 마치고 1

어린이들과의 만남은 항상 즐겁다.

언제,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들을 이끌지 모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순수함은 항상 우리들을 놀라게
한다.

지난 해 금빛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올해의 아이들과의
만남은 작업의 스케일이나 작업 접근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는 온 동네의 축제였고, 거리마다 약간씩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작업도 이루어졌다. 결국,
“우리 동네”라는 주제 속에서 공통적인 어떤 것을
표현해 내는 동네를 위한 공동 작업 이었다면, 이번엔
“우리 집”이라는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아이들의
세계를 “나”에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석
했다는데 그 다른 점을 둘 수 있다.
거기에 자신들이 작가가 되었다는 자부심은 결국 힘든
작업 환경 속에서도 진지함을 잃지 않게 해준 또 다른
요소로 작용 했다.

다른 두 조건에서의 아이들의 작업.

작업 방식, 장소, 결과... 이 모든 것이 다른 두 작업
이었지만 그들에게 흐르는 한 가지 고마운 공통점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모두 이 작업을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하며 함께 즐겨 주었다는 점이다.

05 작업을 마치고 2

윤단비

금빛 초등학교 6학년

처음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 하게 되었을 땐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금빛 초등학교를 선생님이 선택 해주셨는지도 굉장히 궁금 했었구요.

작년에 저희 학교 학생들과 같이 작업 하셨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선 궁금증도 풀렸고, 그때도 같이 참여 하지 못한 게 무척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된 친구들은 모두들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같이 작업하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선배 언니들 두 명이 같이 하게 된다는 선생님 말씀에 좀 두렵기도 했으나 언니들은 모두 좋은 선배들 이었고, 함께 작업 하면서 우리들은 많이 친해 졌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저희 집이 선생님들과 다른 친구들의 눈에 재미있게 보이는 것도 신기 했습니다.

처음 성남아트센터로 작업을 하러 갔을 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들 집의 사진과 그림으로 채운다니 너무 기쁘고 재미있었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인지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본다는 생각에 힘들었지만 꼭 참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렸을 땐 가슴에서 무엇인가 기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 돕고 같이 한 작업을 완성한다는 게 훌륭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기억은 언제나 못 잊을 것이고 , 2007년도에 가장 자랑스러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채영

금빛 초등학교 6학년

내가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하고,, 꿈같고,, ?

음,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ㅋ

이번 기회로 작가도 되었지만 예술의 새로운 면(?)도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이윤희

금빛 초등학교 6학년

우리는 벽에 드로잉을 했다.

우리가 작업하는 곳은 2층 집처럼 꾸민 곳이었는데

화장실 1개에다가 방 2개인 20평 남짓한 곳이었다.

화장실에는 각자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을 그려 보았는데 세면대 칫솔 번기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그렸다.

거실엔 우리들의 집을 직접 촬영한 사진과 파스텔로 드로잉을 하였고,

또 다른 작은 방은 실로 여러 군데 묶어서 전시를 구경 온 사람들이

직접 체험 해볼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는 직접 다른 사람들이 실을 묶는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모두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가장 큰 안방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활동과 우리들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해 놓아봤는데 서로 잘나왔다 못나왔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벽 면 모두에는 우리 동네를 그림으로 꾸며보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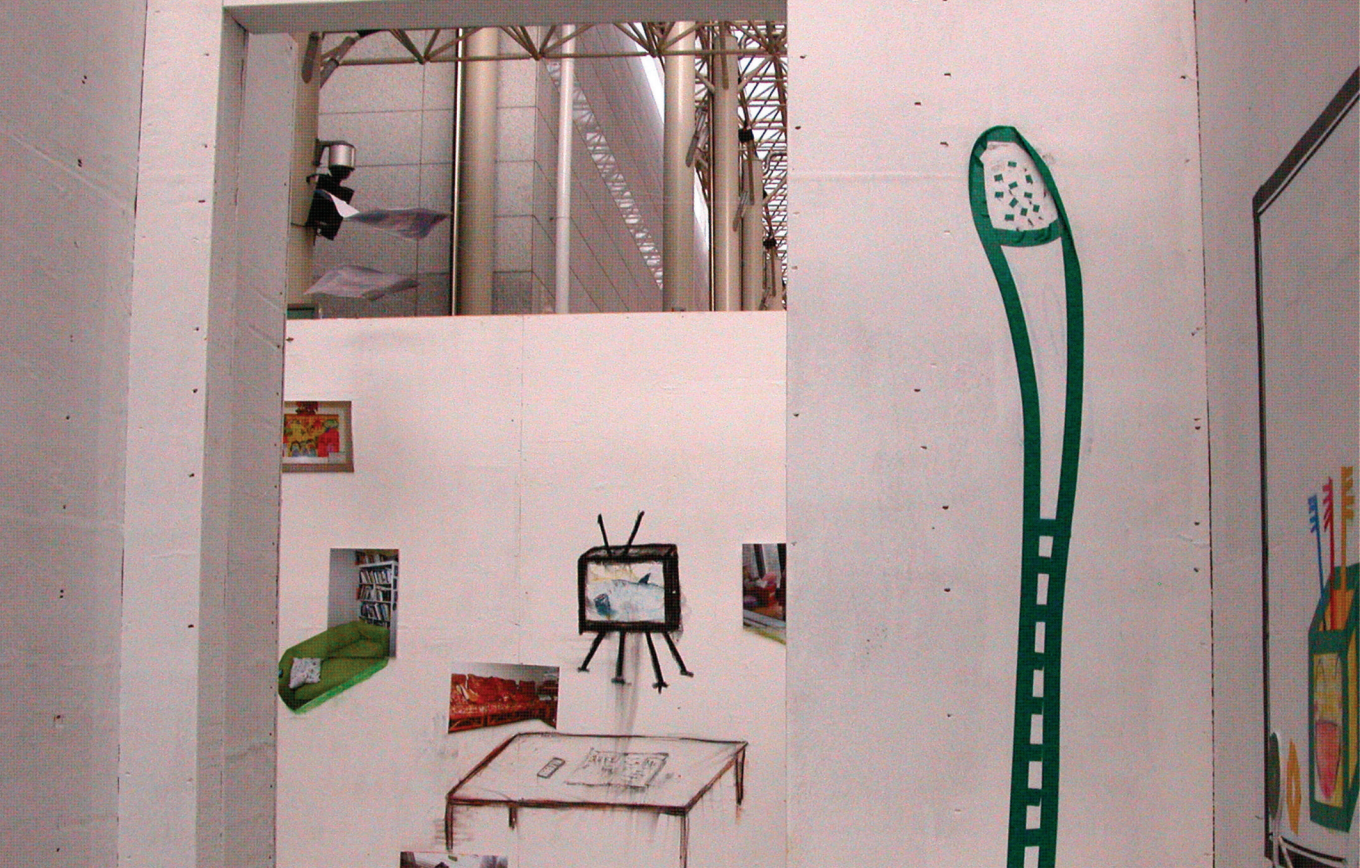
착하고 예쁜 화가 선생님께서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벽에 그림 그리는 것과 사진 찍는 것은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선생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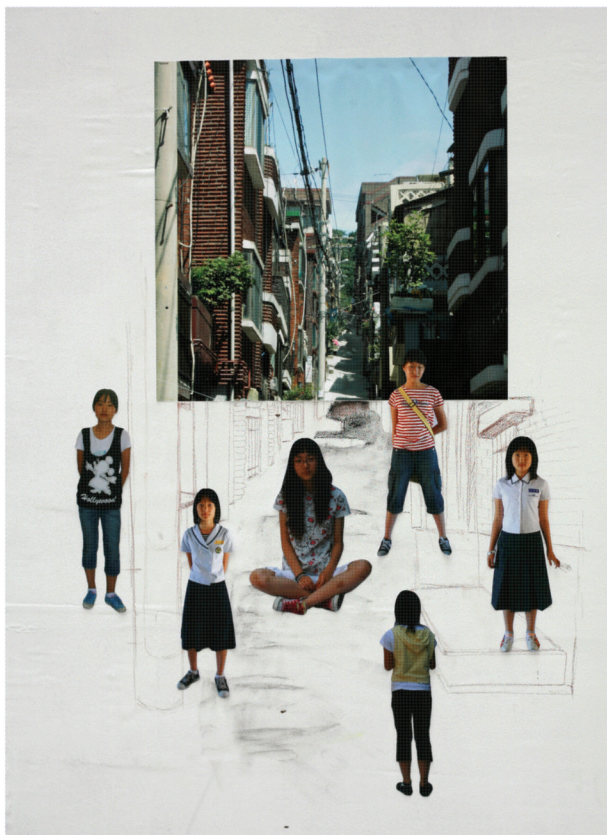
친구들도 모두 같이 재미있게 작업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웠지만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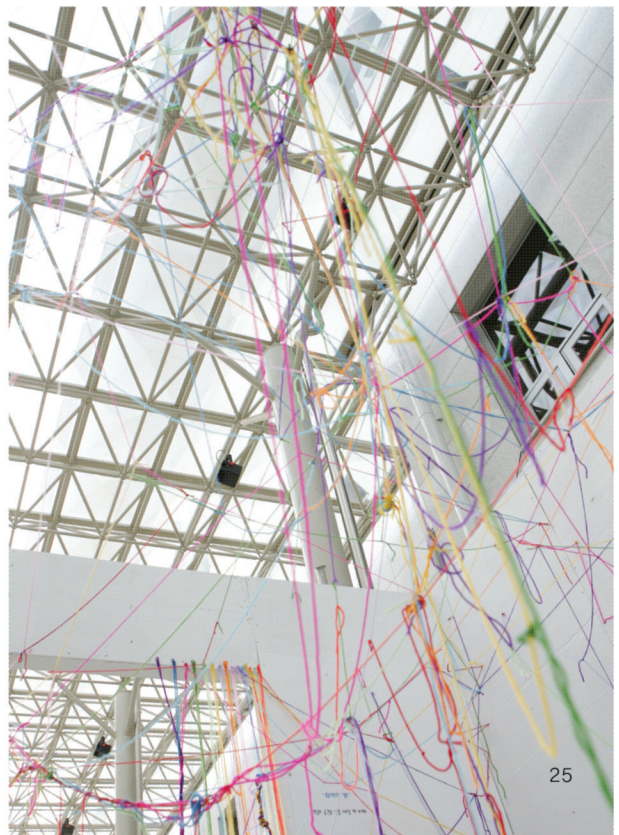


화장실 (색 테이프로 화장실 풍경을 라인 드로잉)

어린이 작가들의 포트레이트(안방)



전기 관람객들이 다녀간 흔적이 보이는 "참여의 방"



이야기 옥상



1.

서울 각지에서 왔지... 그 때 당시에 60년도 후반에서부터 70년도 초까지 서울 번두리 같은데도 아니고 서울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때 당시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꼬방 집이 서울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집들을 철거를 해서 이쪽으로 이주를 시킨 거야. 이쪽으로 온지가 37년 정도 됐지 보상은 없고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았어...

2.

“일가의 가장은 가파른 언덕길 저 아래에다 보통이를 내려놓은 채 숨을 돌리면서 마약 담배를 도로 호주머니에 쑤셔 넣은 다음 펍이나 힘에 겨운 동작으로 보통이를 들어 어깨에 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짐 무게에 압도되어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근근이 언덕뺨기를 올라오고 있는 그 사내가 우리 집에 세들기로 된 권씨임에 틀림없다면.”

3.

내가 한이 설인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에다가 말뚝을 하나씩 쭈욱 박아서 새끼줄로 20평이다 하고서 주는 거야... 집을 짓는 놈들은 텐트 마냥 더 큰 거를 가지고 와서 우선 거기에 기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몇 세대가 같이 기거를 했어 한 세대만 기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불도저로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 때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돈을 먹고 뒤로 빼돌린 놈들이 산비탈에다 새끼줄만 쳐놓고 그냥 뉘나 가져라 그렇게 준거야.



4.

“멋쩍은 듯이 그는 어설픈데 어설픈게 웃었다. 보자기 바깥으로 비죽비죽 내민 것으로 보아 권씨의 아내가 이고 온 짐은 취사 도구일 것이었다.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다면 결국 쌀을 익히고 빨래하고 그리고 깔고 덮는 데 쓰는 몇 점 세간이 이삿짐의 전부인 셈이었다. 아무리 셋방으로 나도는 살림이라지만 그쯤 되고 보면 해도 너무했다. 내가 어안이 병병해 있는 동안에 사내는 슬그머니 한쪽 발을 들더니 다른 쪽 다리 바깥자락에다 구두코를 쓰윽 문질렀다.”

5.

음... 옛날에는 철거민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쏘아 부은 장소지... 과거에는 살기가 막막했는데 지금은 많이 살기 좋아졌지. 지금은 이 바닥이 시멘트이지만 과거에는 야산이었지...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서울만 쳐다보고만 있었어. 가고 싶어서 갈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았어. 하여튼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6.

“계약금을 받을 때만 해도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이 여간 뻔뻔하지 않아요. 이십만 원이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줄 자기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단돈 십만 원만 쥐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쑥 쳐들어오다니, 생각할수록 괴씸하다니까요.”



7.

그 때는 3층 같은 건물이 없었잖아. 텐트로 해서 잘 지었다고 해도 고야로 기와로 지은 게 전부였지... 언덕이었고 흙바닥이라 비가 오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라는 말도 있었어... 과거에는 쉴 곳도 없었고 쉴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은 쉴 장소도 제법 있고 여유도 많이 생겼지 그 때는 너무 어려웠어. 오죽하면 산모가 아기를 낳고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그만큼 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이지... 지금은 살기 좋지 얼마나 살기 좋다고 요새 아파트들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는 아파트 소용없어. 아파트는 비둘기장이나 마찬가지야...

8.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인 줄 누가 알았나요. 감쪽같이 속이려구 텀비는 데야 도리 있어요? 인제 두구 보세요. 우릴 속인 게 한 가지 더 드러날 거예요.”

“긴 또 무슨 뜻이지?”

“여자가 애를 가졌어요. 다 속여두 내 눈만은 못 속여요. 오륙 개월은 될 꺼 예요. 어찌면 육칠 개월인지두 몰라요. 접때까진 한복을 입어서 몰랐는데 오늘 보니 대뜸 알겠어요.”

9.

탄 겨야 없고 머 노인네들 앉아 노는데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쪽 위에 시유지 땅이라 지금 만든다고 하네. 그냥 의자 몇 개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 만든다고 하는 거야(...) 노인정 같은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태평2동은 노인정 같은 게 많지 않아서 낮에는 노인네들이 나가서 쉴 곳이 없어.



10.

“시청 뒷산 은행주택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우리는 단대리 시장근처에서 같았다. 숨통을 죄듯이 다다다닥 엉겨 붙은 20평 균일의 천변 부락이었다. 집주인은 자칭 한의사였다. 간판도 없이 영업 행위를 하는데, 드문드문 찾아오는 환자들의 외모로 봐서 피부병이 전문인 듯했고, 그 효험이 매우 의심스러운 자가 조제의 연고만 팔아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울 성싶었다. 자칭 한의사 김씨의 낮 시간은 거의 낮잠이 일과였다. 그리고 해가 설핏할 무렵부터는 마시기 시작하는 술이 통금을 예사로 넘겨 늘 새벽녘까지 동네가 들썩이도록 주사를 떨게 만들었다.”

11.

저기 위 시유지에 무슨 나무 심는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노인네들 앉아 있을 장소나 만들어 달라고 녹지과에 건의를 했어.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야. 저 밑에 가건물 같이 생긴 것도 시유지거든 그래서 거기다 만들어 주던지 위에 해주던지 해달라고 했더니 위에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 힘들어 중간 중간에 의자 같은 게 많으면 좋겠어...

12.

“참담한 고생 끝에 성남에서는 그중 고급 주택가로 알려진 시청 뒷산 은행주택을 산 다음 자그마치 100평 대지 위에 세운 슬라브 집의 안주인으로서 아내가 전세 입주자에게 내세운 조건은 사실 그리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첫째, 자녀가 둘 이하라야 한다. 둘째, 집 안에서는 언제나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이상 두 가지 조건만 지켜준다면 여타의 일.”

13.

제가 현재 지금 꽃을 심고 있는 곳이 기본 취지가 그거예요. 일터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오면 자고 또 아침에 밥 먹고 나가고 그런데 오고 갈 때 꽃구경도 못하면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 꽃이라도 구경하라고 꽃길로 가꾸는 거예요. 꽃은 뜻있는 사람한테 얻고 동에서 차를 지원받아서 꽃을 심고 있는데... 여기는 노인봉사대가 83년도에 구성되어가지고 노인들이 이 땅에 이 태평4동의 주인이 되가지고 지금은 아주 깨끗해요. 대한민국에서 태평4동 같은 곳을 볼 수 없어요.

14.

“당장 그 이튿날부터 김씨는 자기네 문간방에 세든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선생내외(그렇다, 선생 내외였다)라는 사실을 일삼아 동네방네 외고 다녔다. 성남시 전체를 통틀어 불과 얼마 안 되는 선생에 비해 집들은 부지기수인데 바로 그 선생 중의 하나가 자기 집에 사글세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1,3,5,7,9,11,13 2006 태평동 인터뷰 녹취록

2,4,6,8,10,12,14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발췌



이야기 할아버지 / 박용호 (72세, 태평4동 제4 노인정 회장)

1969년 성남 입주 초창기에 태평4동으로 이사를 오셨고, 현재 살고 계신 곳이 처음 이사 오셨던 그 집이다. 40년간 태평동을 지켜 보신 분으로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태평동의 유래와 특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전시 기획안

제목 _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展
일시 _ 2007년 6월 21일(목) - 7월 6일(금)
장소 _ 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

총괄기획 _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기획 코디네이터 _ 김용익
전시기획 _ 김태현, 조인희
전시 큐레이터 _ 조인희
참여 작가 _ 임홍순, 민지애, 이은정, 정은영.
전시 외벽설치 그림 _ 이화섭, 김선정

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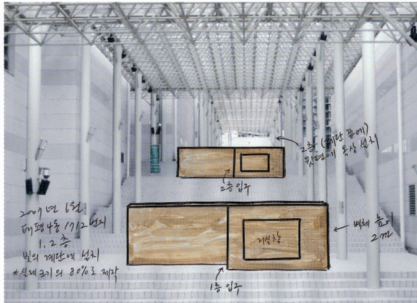
- 전시장 칸막이(태평4동 1712번지 공간 재현/ 1, 2층과 옥상) 설치 완료(6월 10일).
- 전시장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1712번지 집' 실제크기의 80%로 만든다.
- 창문은 거실, 주방 창 제외하고 모두 만든다. 거실, 주방 창은 테이프로 표시.
- 벽 높이는 비율에 상관없이 높게 할 수 있음.

전시목적

- 성남문화재단에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2006년도에 추진했던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를 성남아트센터로 끌어들여 전시한다. 전시물은 작년 사업 결과물과 본 전시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여 진행한다.
- 성남이 갖는 기존 이미지의 선입관을 확장하여,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공동체적 삶 속에서의 순기능' 그 유효한 지점을 전시로 보여준다. 타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동시에 함께 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 타자, 공간, 그 밖의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늘듯 자연스럽게 교차하면서 생산적인 충동을 가질 수 있는 전시형식이 되도록 공간 구성을 한다.
- 향후 진행될 성남 도시공간 속의 공공 미술이 본 전시를 통해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키며, 시민들 삶의 다양한 모습이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전시를 만든다.

전시개요

- '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 위에 3개의 전시공간(성남 기존시가지의 20평형 주거공간을 1층, 2층, 3층(옥상)으로 만들어 전시장으로 사용)을 만들어,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전시공간으로 접근 시키도록 한다.
- 각 공간에 전시 설명을 할 수 있는 도우미 배치
- 전시중 작업 관련 작가 세미나 개최
- 전시가 끝난 후 자료집 제작



1층 (주방 겸 거실, 안방, 작은 방, 화장실) 4개의 공간

참여 작가 _ 임흥순, 민지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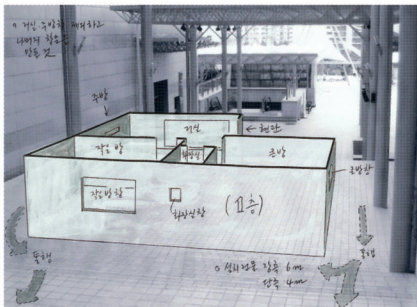
내부 _ 거실, 큰방/ 2006년 태평동 사업 결과물 자료전시,

작은방/ 움직이는 사진관 영상 및 사진전시(전기시설 및 기자제 필요) 화장실/

외부 _ 복잡한 성남 풍경 컨투어로 작업. 재료는 실리콘, 테이핑, 백목 중 선택

태평4동 슬라이드 촬영

작업 _ 이화섭, 김선정



2층 (주방 겸 거실, 안방, 작은 방, 화장실)

참여 작가 _ 이은정, 정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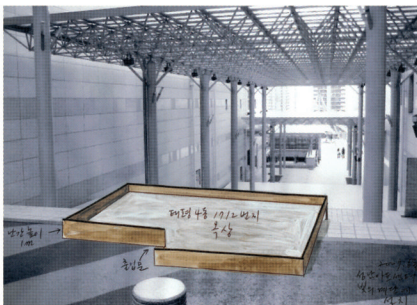
2층 전시장 안 밖을 아이들이 작가가 되어 참여한다.

내부 _ 아이들이 찍은 집안 풍경 전시(중고 디카 구입)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과 만든 것(작업으로 남는 것이 아닌 쓰기 위해 만든 것)설치

외부 _ 아이들이 그리는 태평4동 지도 그리기 벽화

내용 _ 자기 집, 친구 집 약도를 여럿이서 전시벽체 비레로 된 종이에 작업

작업 _ 아이들 직접 참여와 이화섭, 김선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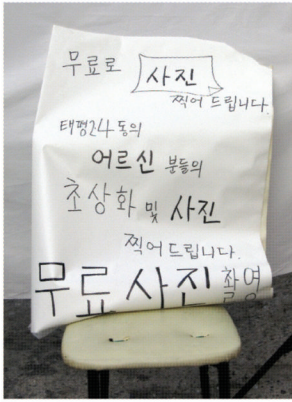
3층 옥상

옥상 풍경(실제 사용하는 화분, 평상 등을 옮겨 놓는다) 재현

난간 높이 1m(안전을 위해)

성남의 역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담 좋은 아저씨

섭외(관람자에게 성남 이야기)





작가 약력

김 태 현 Kim tae heon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삼정미술관, 성곡미술관, 사루비아 다방, 갤러리 피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2006 〈드로잉 에너지〉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1998년 「성남시 환경조형물 실태조사」자료집 제작과 「공간의 파괴와 생성/ 성남과 분당 사이-문화과학사」를 출판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 출강하고 있다.
ktaisan@hanmail.net

조 인 희 Cho In hee

동아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김교용, 조인희 전
낙산 프로젝트
고창 돌움별 마을 벽화 감독
단체전 다수
bauhaus6@hanmail.net

임 흥 순 Im Heung soon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졸업. 대안공간 풀, 일주아트하우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 기획전에 참여했다. 개인작업 외 1998-1999년 〈성남프로젝트〉, 2002-2004년 〈믹스라이스〉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했으며, 2007년 〈성산SH아파트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했다.
human9000@hanmail.net

민 지 애 Min Jiea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졸업. 1998년 <나눔의 집> 판화강사,
2001-2003<낙원극장 프로젝트>통해 도시공간을 재해석하고 사회 참여적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전주영화제>, <비디오 다큐멘트>, <인미공-열전> 등 다수의 기획 전시에
참여했으며, 2007년 <가능한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브레인팩토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jiaemin@hotmail.com

이 은 정 LEE Eun-Jung

프랑스 디종 국립 미술학교와 파리 국립 고등 미술학교를 졸업. 파리 국립 자연사
미술관에서 “현대미술” 전을 비롯한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 국내에서 갤러리 룩스
초대전, 갤러리 스케이프 “에니멀 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의 “혼성품” 등...
의 기획전에 참여.

현재 작가로 활동하며 계원예술대학, 소마 미술관, 아카데미 정글 등에서 강사로 활동.
chezlea@naver.com

정 은 영 Chung Eunyoung

파리 8대학 사진&멀티미디어 대학원 수료.

2007년 현재 사진아트센터 BODA 출강, “Nikon DSLR 지침서” 출판,

2006-2007년 소마미술관 전시연계어린이 아카데미 프로그램 연구, 지도강사

2006년 성남 문화재단 “태평동 프로젝트” 참여 작가,

1999~2005년 중앙문화사 파리 현지 통신원, 1991년 한겨레 출판사 단행본 ‘섬, 섬, 섬’

kyuli33@naver.com

발행일 _ 2007년 11월
발행인 _ 이대엽, 이종덕
발행처 _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125/문화기획부
팩스 031-783-8140
www.sncf.or.kr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발행인의 서면허가 없이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전재할 수 없습니다.

